

모하메드 디프의 『3부작 알제리 La Trilogie Algérie』 : 탈식민 이념의 설득

김정숙(배재대학교)

서론

본론

1. 모하메드 디프와 『3부작 알제리』
2. 분산된 구성과 서사구조의 약화
3. 소년 주인공 오마르: 이상적 독자
4. 등장인물의 대화: 식민담화의 분출

결론

서론

알제리 프랑스어 문학의 본격적인 출발은 “세기의 가장 참혹한 탈식민 전쟁”¹⁾이라고 알려진 알제리 독립전쟁의 발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보다 정확하게 식민통치 말기, 독립전쟁 직전인 50년대 초반이다. 긴 통치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던 알제리 프랑스어 문학의 출현은 표현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알제리가 절박한 국면에 처해 있었다는

1) Lacoste, Camille et Yves(sous la direction de),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 Paris, La Découverte, 2004, p. 32.

것을 입증해 준다. 프랑스인 이주자들을 위한 대규모 토지 몰수, 프랑스 3개 행정단위로 편입되었으면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여 받은 정치적 소외, 양차 대전에 참가를 강요받았으면서도 일방적 희생에 대하여 약속한 보상의 부재 등 그간 누적되었던 식민통치의 폐해로 인해 알제리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문학사가들이 흔히 “52년 세대”²⁾라고 부르는 일군의 작가들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피식민적 상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소명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학자의 지적대로 그들의 글쓰기에는 “전쟁, 식민체제의 부당함에 대한 의식, 문화·정치적 정체성의 요구가 개입되어”³⁾ 있었다. 알제리 현대문학을 대표한다고 추앙받고 있는 작가 모하메드 뎃 Mohammed Dib은 독립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958년 한 인터뷰에서 다음처럼 작가의 소명의식을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의 비극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 비극의 주역들이다. (...) 보다 정확하게 우리는 민족과 어떤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를 ‘공공작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민족을 향하여 그 특수한 구조와 상황들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특수성을 증언하고 그 특수성이 얼마나 보편성 속에 등재되는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Car nous vivons le drame commun. Nous sommes acteurs dans cette tragédie(...). Plus précisément, il nous semble qu’un

2) 모로코 작가 알베르 메미 Abert Memmi가 『마그레브 작가 선집 Anthologie des écrivains maghrébins』에서 처음 사용했던 표현으로, 피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식민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차용했던 이전 세대 작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Jacques Noiray, *Littératures francophones: I. Le Maghreb*, Paris, éditions Belin, 1996, p. 12.

contrat nous lie à notre peuple. Nous pourrions nous intituler *ses écrivains publics*. C'est vers lui que nous tournons d'abord. Nous cherchons à en saisir les structures et les situations particulières. Puis nous nous retournons vers le monde pour témoigner de cette particularité, mais aussi pour marquer combien cette particularité s'inscrit dans l'universel.⁴⁾

문학의 현실 참여적 소명은 뭉뚱 아니라 몰루드 마므리 Mouloud Mammeri,⁵⁾ 몰루드 페라운 Mouloud Feraoun, 카텝 야신 Kateb Yacine 등 흔히 알제리 문학을 대표한다고 열거되는 작가들이 공유했던 의식으로, 그들의 작품은 식민지배라는 민족공동체가 처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적·정신적 성찰의 결과물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을 성취하고 난 1962년 이후 작품들 역시도 이 본질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숙고를 통한 자기 극복을 다루고 있어 탈식민적 기획은 여전히 알제리 문학의 핵심 주제로 남아 있다.

모하메드 디브의 초기 작품인 『3부작 알제리 *La Trilogie Algérie*』는 식민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알제리’라는 국가를 부각시키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격렬했던 알제리의 현대사와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작품으로, 독립전쟁의 발발에 대한 예언적 의미 혹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작품의 중심에 제기했던”⁶⁾ 기여 등이 이미 충분히 지적

4) Mohammed Dib, *La Trilogie Algérie: La Grand maison, L'Incendie, Le Métier à tisser*, Alger, Barzakh, 2009, 서문, p. 12.

5) 작가 Mammeri를 ‘마메리’로 옮겨 적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알제리인들이 통상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마므리’로 적는다.

6) “En général Dib a été loué par la critique de gauche pour avoir posé le problème politique et social au centre de ses premiers romans(...)”, Jean Déjeux, *Littérature Maghrébine de langue française*, Ottawa, édition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작품의 내재적 요소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인상주의적 평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⁷⁾ 서사구조, 인물체계, 재현의 기법 등 텍스트의 내적 요소들은 작가가 알제리 문학 전통에는 낯선 이식 장르를 자기화하여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념을 설득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알제리 현대문학에서 문학 장르의 이식 및 수용의 문제는 폭넓은 자료들을 토대로 별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접근하는 첫 단계로 작품 속에 나타난 해방 이념의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내적 요소들이 유발하는 텍스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러 연구 논문이 발표된바 있으나, 작가의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작가와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밝히고자 한다.

Naaman, 1973, p. 143.

7) 이러한 단언은 주로 개론서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답에 관한 연구가 다른 작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부작 알제리』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기대보다 많지 않았으며, 특히 작품의 이념적 전달과 관련하여 특별한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연구 논문들을 언급하지 않아 참고문헌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다. 마그레브 및 알제리 문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위 논문 상태로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참고 문헌 활용이 어려웠다는 한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론

1. 모하메드 디프와 『3부작 알제리』

1920년 알제리 서북부 고도(古都) 틀렘센 Tlemcen에서 태어난 모하메드 디프는 카뎅 야신과 더불어 알제리 현대문학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이다.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 공산당에 잠시 가입하고 농민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독립 후에는 특별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문학 창작에 전념하였다.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식민정부에 의하여 1959년 알제리로부터 추방된 뒤 2003년 망명지 프랑스에서 작고하였으며, 1947년 시 작품을 잡지 포르즈 *Forge*에 발표한 이래 1990년 마지막 작품 『대리석 눈 *Neiges de marbre*』까지 소설, 시, 시나리오, 희곡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표방하면서도 인간 내면의 성찰과 언어적 모험 등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그의 작품 세계는 어느 한 측면으로만 축소시킬 수 없는 다면적이고 풍부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알제리 작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윤리적 관심과 미적 관심, 역사와 예술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던 작가로 후대에 평가되고 있으며,⁸⁾ 1952년 『대가(大家)』로 패네옹 상 le prix Fénelon을 받은 외에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여 문학적 업적을 인

8) “En effet et du point de vue de la littérature dite d’expression française de cette période, Mohammed Dib a été perçu comme celui qui a concilié, en un équilibre heureux, éthique et esthétique dans le sens d’une attente comblée.” Farida Boualit, “La logique chromatographique de la trilogie Algérie”, *Itinéraires Contacts de cultures*, vol. 21-22, 1e 2e semestres 1995, Paris, L’Harmattan. p. 17.

정받은바 있다.

『3부작 알제리』는 모하메드 덩이 발표한 첫 세 편의 소설, 즉 『대가 *La Grande Maison*』, 『화재 *L'Incendie*』, 『베틀 *Le métier à tisser*』를 하나로 묶는 총칭으로, 특히 첫 소설 『대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알제리 소설문학이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제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1949년부터 구상해왔던 계획을 구체화한 작품들로, 세 편 모두 프랑스 쇠이유 Seuil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되어 아직도 각 권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최근 알제리에서는 세 편을 묶어 『3부작 알제리 *La Trilogie Algérie*』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알제리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2009년 알제리 바르자크 Barzakh 출판사에서 출판한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세 작품의 발표 시기는 각기 52년, 54년, 57년으로, 알제리의 무장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54년 전후에 해당하며, 작품의 배경은 이 시기보다 약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39-4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알제리’라는 공간적 배경과 식민지배의 말기라는 시간적 배경의 조합이 내용을 짐작하게 하듯, 가혹한 식민통치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도시 빈민과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독립을 향한 그들의 정신적 각성 과정을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생활의 참상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일부 알제리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피식민 사회 묘사를 통한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이라는 시대 증언적 가치는 작품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후 발표되었던 수준 높은 그의 작품들이 초기 작품인 『3부작』의 그늘에 가려지고 있을 정도로 작가의 대표작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3부작 알제리』는 강렬한 햇빛이 넘치는 메마른 사막을

연상시키는 알제리의 상투적 이미지와 정반대로 춥고 습한 도시와 인근 농촌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소설로, 전편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주제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이다. 틀렘센의 빈민가에서 가장을 잃은 한 가족이 아무런 경제적 수입이 없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이 첫 편인 『대가』의 내용으로,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열 살짜리 소년 오마르 Omar의 행동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허기”가 주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비참하다.⁹⁾ 2편 『화재』는 소년 오마르가 여자 친구 즈호르 Zhor를 따라 방학 동안 놀러가 지내게 되는 농촌마을 브니 부블렌 Bni Boublen을 배경으로 농지를 프랑스이주자들에게 빼앗기고 고용 노동자들로 전락한 알제리 농부들이 착취와 경멸 속에 살고 있는 참상이 묘사되어 있다. 농민들이 파업으로 식민지배의 부당성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벌어지는 파업과 체포, 구금, 죽음 등이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 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3부작』을 구성하는 마지막 소설인 『베틀』에는 오마르가 틀렘센으로 돌아와 학교를 포기하고 방직공장에 취직하면서 만나게 되는 도시노동자들의 세계가 등장하는데, 지하공장에서 과중한 노동에 몰려 있는 직공들의 사소한 다툼과 불행, 그리고 독립을 향한 의식화가 주된 줄거리이다. 거대한 서사물을 연상시키는 ‘알제리’라는 제목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대지평과는 달리 재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하층민의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문제의식의 자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9) “(...) mais tous à l’unanimité y ont vu un livre sur la faim, alors que Dib n’avait pas conscience que ce fut là réellement la matière du livre.”, Jean Déjeux, *op.cit.*, p. 149.

스토리 요약에서 잘 드러나듯 빈곤, 고통, 불행이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원인이 식민통치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식민지배의 부당성 고발과 저항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이 텍스트의 전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전언의 전달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대표적으로 “약간 피상적으로 참여하는 묘사들 des descriptions ‘engagées’ un peu superficielles”¹⁰⁾과 같은 지적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극적이고 우회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줄거리 상에 식민통치자와 피식민자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해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언설이 서사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실을 소단위로 분절하는 분산적 구성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한 현실인식을 제시하는 방식, 소년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스토리 전개의 축으로 설정하여 탈식민 담화를 수렴하는 방식,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하여 식민 담화를 표출하는 방식은 3부작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내재적 특성들로 작가가 대단히 정교한 설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내재적 요소들의 분석에는 구조주의 서사물 분석 이론과 아울러 수잔 솔레이만 Susan Suleiman의 『테제소설 *Le roman à thèse ou l'autorité fictive*』, 또한 등장인물을 통한 이념 발현 양상을 분석한 필립 아몽 Philippe Hamon의 『텍스트와 이념 *Texte et Idéologie*』 등에 제시된 이론적 정의들이 유용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10) Pierre Laffont, “Progrès”, *Revue culturelle algérienne*, No 1, mars 1953, 인용, *Ibid.* p. 143.

2. 분산된 구성과 서사구조의 약화

『3부작 알제리』의 줄거리는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과 행위가 전개되는 지극히 평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상이나 스토리의 전개를 중단시키는 여담도 거의 없이 시간의 축을 따라 전진하고 있으며 세 편의 소설도 연속해서 시간적 배치를 따르고 있다. 일견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 3부작의 담화구조는 그러나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길이가 일정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짧은 계기단위 *séquence*들의 연쇄라는 것이다. 한두 페이지 혹은 길어야 십여 페이지를 넘지 않는 장면들로, 『대가』의 첫머리만 예로 들어보더라도 주인공 오마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두 페이지에 걸쳐 있고, 이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한 페이지에 전개된 후, 다시 학교 장면이 두 페이지에 소개되는 식이다. 이러한 계기단위가 『대가』 첫머리부터 『베틀』의 종결부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된 구성을 계량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계기단위의 숫자로, 3부작을 구성하고 있는 세 편의 소설들은 각기 백여 페이지를 크게 웃돌지 않는 중편 정도의 분량이지만 각기 22개, 36개, 38개라는 많은 소단위로 쪼개져 있다. 평균 세 페이지 정도의 대단히 짧은 호흡의 장면들이 빠르게 바뀌는 구조인 것이다.

이 계기단위들은 짧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다. 같은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여 일관성을 부여하는 동의소 *isotopie* 구실을 하고 있지만 주제의 측면에서 상호 관련지을 수 있는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오마르가 1차 대전에 참가했던 퇴역 군인 코망다르 Comandar의

엄숙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에 잇대어 농부들이 모여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기단위들 간의 느슨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다. 알제리 민중의 일상생활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개별 장면들은 빼버린다 해도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으며, 반대로 다른 단위를 첨가한다 해도 즐거리 전개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시간적 선후에 따른 배치를 지키는 한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열린 구조이며, 각 계기단위들이 전체 구조 속에서 기능적 필연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분산된 구조인 것이다. 세 편의 소설들도 각기 다른 배경 속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여 서로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 필연적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점에서 같은 분산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3부작을 구성하는 세 편의 소설이 각기 독립된 소설로 출판되었고, 여전히 각 편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자율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현실을 독립된 소단위로 분절하여 제시하는 방식과 맞물려 있는 특징적 현상이 서사구조의 약화이다. 서사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서사구조는 유기적으로 통일된 행위도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 사건과 행위의 논리적 연쇄를 뜻한다. 구조주의적 분석이 제시하듯 소설을 포함한 “모든 서사물은 인간적 이해와 관련된 사건의 연속을 하나의 행위 단위로 통합하는 담화”¹¹⁾이다. 그러나 3부작에서는 하위 층위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상위 층위에서 통합하는 통사적 축을 찾기 어렵다. 통상 서사문법을 구성하는 사건의 발단에서 해결의 과

11) “Tout récit consiste en un discours intégrant une succession d'événements d'intérêt humain dans l'unité d'une même action.”, Roland Barthes, “L'analyse structurale du récit”, *Communications* 8, Paris, éd. du Seuil, 1981, p. 68.

정, 그리고 결말로 이어지는 행위도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클로드 브르몽 Claude Bremond의 정의에 따르면 이처럼 “조직되지 않은 사건의 연쇄 une succession de faits incoordonnés”는 서사물 récit이 아니라 “연대기 chronologie”일 따름이다. 『대가』나 『베틀』은 이러한 정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일상생활의 장면들이 계열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그 단위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인간적 기획 projet humain”이 없기 때문이다. 서사문법을 국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농부들의 파업을 중심으로 줄거리가 구성되어 있는 2편 『화재』뿐이다. 그러나 『화재』도 나머지 두 소설과 마찬가지로 서사적 침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농부들의 파업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서사성을 생산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파업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광경이 19개 계기단위에 걸쳐 길게 전개되는 반면, 파업의 결의를 행동으로 옮기고, 주민들의 참여로 확산되고 기금을 모집하는 등 진행과정이 단 한 페이지에 걸쳐 급박하게 서술되어 있다. 파업의 진행과정이 생략된 채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되고 있어 서사적 역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파업과 탄압의 이야기에는 행동이 거의 표현되지 않고 있다”¹²⁾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사구조의 약화 혹은 침체는 이념의 전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설의 교훈적 자질을 극대화한 형식인 ‘테제소설’ 연구는 이념의 전달에서 이야기 자체, 즉 서사구조의 중요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테제소설’에서 이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

12) “Paradoxalement, dans cette histoire d’une grève et d’une répression, l’action représente peu de chose.”, Jean Noiray, *op.cit.*, p. 75.

하여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서사 전략은 “스토리가 일의적 해석을 유도하며, 그것이 (잠재적으로라도) 독자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강령으로 이어지게 하는”¹³⁾ 것이다. 즉 주인공이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말에 도달하는 행위도식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가 주장하는 특정 이념을 자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결정적 사건도 없으며, 승리도 실패도 없고, 어떤 인물의 운명도 바뀌지 않는 침체된 서사형식을 보이고 있는 3부작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식민 해방의 전언이라는 기대지평을 혼란에 빠뜨리고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부정적인 평가는 일차적으로 서사구조의 부재에서 기인된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탈식민 기획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모호한 태도이다. 이러한 모호한 태도에 대하여 프랑스 독자를 의식한 자기 검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그러나 설령 가설의 근거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창작의 논리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13) “L’histoire appelle une interprétation univoque, laquelle à son tour implique une règle d’action applicable (au moins virtuellement) à la vie réelle du lecteur.”, Susan Suleiman, *Le roman à thèse ou l’autorité fictive*, Paris, PUF, 1983, p. 70.

14) 작가가 텍스트의 독자로 우선적으로 프랑스인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소설이 발표될 당시 알제리에서는 출판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독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답이 3부작을 쓰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프랑스 이주민 작가들의 권고였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의 텍스트가 만나게 될 독자는 프랑스인이라는 점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적 상황 외에도 텍스트 내 도입되어 있는 아랍어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가되어 있는 프랑스어 주석은 이러한 사실을 이론의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글쓰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게 보인다.

풍경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Dépeindre un paysage, ceux qui l'habitent, les faire parler comme ils parlent, c'est leur donner une existence qui ne pourra plus être contestée. On pose le problème en posant l'homme.¹⁵⁾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려 보이는 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곧 문제 제기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제조처들로 정치력 능력의 행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과감한 독립 투쟁과 같은 강한 서사는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수많은 조각들로 왜곡되어 일관성 있는 총체로 인식할 수 없는 현실과 일상의 사소한 행위들을 반복하며 무의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오히려 식민지배 하의 억압적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다. 고통, 분노, 흥분이 있으나 긴장과 충동이 배제되어 있는 서사구조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무기력을 선고 받은 것처럼 마비되어 있는 피식민지인의 모습과 상동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이미지보다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년 주인공 오마르: 이상적 독자

『3부작』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병원’을 뜻하는

15) Jean Déjeux, *Littérature Maghrébine de langue française*, Ottawa, édition Naaman, 1973, p. 148.

‘대가(다르 스피타르 Dar Sbitar)’에서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 고된 노동과 저임금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농촌 노동자들, 도시로 무리지어 몰려들어 겨울 추위 속에서 틀렘센의 길을 배회하는 굶주리고 지친 걸인들의 집단 등 “홍수”, “안개”와 같은 일련의 은유들로 표현되는 군중의 모습이 텍스트 공간을 채우고 있다. 작가는 마치 3부작을 통하여 알제리의 하층 민중 전체를 호출하여 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익명 집단이 가시화하는 현실의 심각성과 달리 주인공은 십여 세 남짓한 나약하고 어린 소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첫 장면부터 『베틀』의 마지막 장면까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년 오마르는 분산된 계기단위들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동의소이며, 세 편의 소설이 구축하는 상이한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자 구실을 한다. 각 계기단위들은 오마르가 행위자이거나 적어도 목격자 혹은 관찰자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세 편의 소설은 오직 오마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또한 텍스트가 지시하는 공간이 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의 행동반경이 곧 텍스트 공간의 경계가 되고 있다. 이처럼 오마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텍스트가 성립된다는 의미에서 그는 이야기의 근원이고 받침대이며, 세 편의 소설은 마치 주인공이 연속해서 만나는 사회에 대한 자료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마르는 또한 모든 등장인물의 조직망을 구성하는 중심에 있다. 『화재』의 일부 부수적 인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물들은 오마르가 만나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상으로, 그와의 친연성에 따라 작품 내 비중이 할당되어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오마르의 어머니 아이니 Aimi와 오마르에게

세상지식과 이념을 전달하는 하미드 Hamid, 코망 다르, 오카샤 Ocacha 세 명의 인물들이 가장 많은 발언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오마르는 이처럼 분산된 구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심급 instance이면서 인물체계를 구성하는 그물망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내에서 가장 높은 기능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마르는 열 살 남짓한 소년인 까닭에 행위자-주체가 될 수 있는 의지 vouloir는 물론 지식 savoir과 능력 pouvoir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론하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력을 기대할 수 없다. 3부작 전체가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성장소설’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주인공의 특징 때문이다. ‘성장소설’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나약한 주인공은 위에 언급한 침체된 서사구조와 마찬가지로 이념의 전달에는 부적절하다. “텍스트에서 이념과 그 규범적 체계가 분출하는 특권적 장소로서 행위향과 수동향으로서 인물-주체”¹⁶⁾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주제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마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관찰로, 여러 담화들, 특히 저항과 해방의 담화들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마르의 역할은 이념 전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독자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

16) “Dans un texte, c’est certainement le personnage-sujet en tant qu’actant et patient, en tant que support anthropomorphe d’une certain nombre ‘effets’ sémantiques, qui sera le lieu privilégié de l’affleurement des idéologies et de leurs systèmes normatifs: il ne peut y avoir norme que là où un ‘sujet’ est mis en scène.”, Philippe Hamon, *Texte et idéologie*, Paris, PUF, 1984, p. 104.

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미 기여를 사전에 예상하여 조직해야 하는 의미론적으로 ‘불확실한 reticent’ 인공물”¹⁷⁾이다. 다시 말해서 발화자인 작가는 자신의 전언에 대하여 독자인 수화자가 할 수 있는 해석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작가는 전언의 반복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이 전략은 텍스트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텍스트 전체 층위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자가 해야 하는 추론과 해석 작업을 텍스트 내에서 충분히 행하는 것이다. 『3부작』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년 오마르인 것이다. 모든 탈식민 담화들을 수용하는 심급으로서 오마르는 작가가 기대하는 이상적 독자의 역할을 텍스트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내 수화자의 역할을 위하여 오마르 주변에는 식민지배의 비인간적 질서를 비판하며 저항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반(反)식민 담화의 전달 기능을 부여받은 세 인물들은 아버지가 없는 오마르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오마르에게 결여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있다. 1편과 2편에 등장하는 틀렘센과 브니 부블렌에서 민중을 계도하며 파업을 주도하는 하미드 사라즈 Hamid Saraj, “울림이 큰 목소리로 삶의 비밀들을 밝혀주며” 민족, 전통과 같은 거대 담화를 주입하고 엄숙한 어조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합임을 알려주는 코망다르, 오마르를 보호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

17) “(...) un artifice sémantiquement ‘réticent’ qui organise à l’avance les apports de sens que le lecteur doit effectuer pour le rendre intelligible”, Dominique Mainueneau, *Le discours littéraire*, Paris, Armand Colin, 2004, p. 29.

해서 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방직 공장 노동자 오카샤Ocatcha, 이들은 각기 학식, 경험, 행동력을 상징하며 상호 보완하고 있다. 특히 “알제리여, 누가 너를 해방할 것인가? 너의 민족은 길 위를 걸으며, 너를 찾고 있다”¹⁸⁾고 비장하게 외치는 코망다르는 알제리인들이 어떻게 추방되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를 설명하고, “우리는 서로가 마치 사슬처럼 이어져야 한다”¹⁹⁾는 말로 저항과 해방의 행동 강령을 오마르에게 전달하고 있다.

『3부작』 텍스트는 또한 오마르의 이해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마르는 진짜 세상 이치를 그 하나하나 특별하게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었다. 그는 머리로 죽음과 어머니의 가없는 피로감 사이의 관계, 농부들의 운명과 다르 스비타르의 배고픔 사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²⁰⁾ 오마르의 뛰어난 흡수력의 강조하고 있는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가장 고통 받으면서도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선을 지향하는 소년의 모습은 그것이 유발하는 에토스적 측면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오마르가 입문자들로부터 받은 교육을 통

18) “Qui te délivrera, Algérie? Ton peuple marche sur les routes et te cherche.”, Mohammed Dib, *La Trilogie Algérie: La Grand maison, L'Incendie, Le Métier à tisser*, Alger, Barzakh, 2009, p. 155.

19) “Il faut que nous soyons liés les uns aux autres comme par une chaîne.”, *Ibid.*, p. 260.

20) “Omar savait vraiment ces choses-là, sans qu'il ait eu besoin de réfléchir à chacune d'elles en particulier. Son esprit avait déjà saisi le rapport qui existait entre cette mort la pauvre fatigue de sa mère, entre le sort des fellahs et la faim de Dar Sbidar (...)”, *Ibid.*, p. 201.

21) 오마르는 생계를 위하여 밀수를 하려는 어머니를 만류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등 가장 윤리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하여 어머니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신적 성숙에 도달하는 과정은 이상적 독자가 설득되어야 하는 과정의 한 본보기로 제시되어 있다. 오마르가 어머니에게 건네는 다음의 말은 독자를 향한 작가의 전언을 압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발, 어머니, 겁내지 마십시오... 때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지요. 어머니를 사로잡았던 슬픔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알았습니다. 제발 그 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삶은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모성적 충동의 이름으로 나의 희망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Je t'en conjure, mère, n'aie pas peur... Je sais que cette peur existe parfois: tu la nommes le Destin. En tout cas, ça existait tout à l'heure, je l'ai éprouvé à la tristesse qui s'est emparée de toi. Je t'en conjure, apprends que ce pouvoir n'est nulle part, que la vie n'est pas une renonciation. Ne renie pas mon espoir au nom de ton impulsion maternelle.²²⁾

4. 등장인물의 대화: 식민담화의 분출

『3부작』은 수많은 목소리들로 가득 채워진 텍스트이다. 등장인물들은 모여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혼자서도 마치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독백을 하기도 한다. 가족이 모여, 친척의 방문을 계기로, 혹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화재』에서 농부들은 행동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집회를 갖고 불만을 토로한다. 마지막

22) *Ibid.*, p. 305.

편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며 나누는 대화가 있으며, 오마르와 오카샤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만나 세상사를 이야기한다. 화자 까지도 마치 등장인물처럼 독자들의 공감을 탐색하며 말을 건네고 있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자유간접화법도 작품의 구어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대화의 지배적 비중은 인쇄 상의 많은 여백을 통해서도 쉽게 드러난다. 『3부작』을 “알제리에서의 대화 conversations en Algérie”²³⁾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무리가 아니다. 비록 문학텍스트라는 상상의 세계 속이지만 알제리인들은 박탈되었던 발언권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식민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행사하는 힘이 표출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전편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존재가 피식민자의 담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²⁴⁾ 소수 식민이주자들이 다수의 현지인을 지배하는 물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을 통하여 가해자가 행사하는 힘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특히 『화재』에서 농민들이 과업을 전후하여 나누는 대화는 식민지배의 담화가 집중적으로

23) “Le texte, (...), pourrait s'appeler en grande partie ‘conversations en Algérie’: (...)”, Charles Bonn, *Le Roman Algérien de langue française*, Paris, L'Harmattan, 1985, p. 31.

24) 실제 텍스트 내에는 식민통치자 혹은 식민이주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편에서 주인공 오마르가 학교 수업시간에 “조국 프랑스”를 배우며, 그 비현실감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며, 『화재』에서 들뜬에서 일하던 농부가 농기계 조작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프랑스인 농장주가 나타나 사고를 무마하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주인공 오마르를 짐꾼으로 착각하고 집까지 짐을 들게 한 뒤 돈을 주는 장면뿐이다. 3편 『베틀』에는 허 등장하지 않는다. 3편의 장면들도 1-2페이지에 걸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텍스트 내 비중은 미미한 것이다.

드러나는 장소이다.

무슬림은 종족이 다르다고, 인간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Les musulmans, pensent-ils, c'est une autre race, ce ne sont pas des hommes!²⁵⁾

굶어죽지 않는 한 현지인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식민이 주자들은 말한다. 그들은 게을러서 하루 먹을 것을 벌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moins de mourir de faim; disent les colons, les indigènes ne veulent pas travailler. Quand ils ont gagné de quoi manger un seul jour, leur paresse les pousse à abandonner le travail.²⁶⁾

농부들이 인용하는 식민지배자들의 경멸적 언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는 전후의 맥락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담화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바 드두슈 Ba Dedouche라는 한 농부가 한 모임에서 자신이 들었던 말들을 길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해 보시라. 농부라고? 흉악한 게으름뱅이들이다. 하루 일하고 열흘 쉬어야 한다. 사흘 먹을 것을 벌면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동안 도마뱀 시늬를 한다. 펠라흐(알제리 농민)들은 나쁜 냄새가 난다. 짐승들이다. 거칠다,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펠라흐들은 운명에 만족한다.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바꾸어 보라고 하면, 존경받은 인간이 되라고 하면... 싫다고 할 것이다. 펠라흐는 그렇

25) *op.cit.*, p. 213.

26) *Ibid.*, p. 91.

게 생긴 자들이고, 그렇게 살 것이다. 좋은 것을 주어 보아라. 그들의 이미지처럼 망쳐놓을 것이다. 자신의 조건을 넘어설 능력이 없다.

Qu'on aille dire: le fellah? Un fieffé paresseux; pour travailler un jour, il lui en faut dix de repos, et s'il a gagné de quoi subsister trois jours, il cessera de travailler; et, tout ce temps-là, il fera le lézard: Le fellah sent mauvais. Le fellah n'est qu'une bête. Le fellah est grossier. Le fellah est ceci, et il est encore cela... voilà! Et le fellah; on vous l'expliquera bien, est satisfait de son sort. Lui proposeriez-vous de changer sa vie contre une autre, claire et heureuse, où il sera un homme considéré? ... Il refusera. Tel il est, tel le fellah le restera! D'ailleurs ce que vous lui donnerez de beau, il le dégradera tout de suite à son image, incapable qu'il est de s'élever au-dessus de sa condition!²⁷⁾

첫 문장의 “사람들 on”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일반화자이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언술의 내용을 통하여 프랑스인 이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해보라”에 이어 인용되는 내용은 도전의 어조를 담고 있으며, 타자의 말을 흉내 내면서 비웃는 어조를 담고 있는 다성적 언설의 전형이다. 인용이 끝나면서 “그러나 불행한 일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런 멋진 삶을 살아 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Mais le malheur, c'est que ceux qui parlent ainsi ne nous laissent jamais essayer de cette belle vie.”라고 덧붙이며 타자의 말이 거짓임을 알린다. 식민이주자들의 담화에 이어 그 말을 뒤집는 다른 시

27) Ibid., p. 166.

각을 제시함으로써 그 담화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언설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담화가 충돌하는 하나의 무대가 되고 있으며, 서서구조에서 배제되었던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언설도 식민자들의 담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또 다른 예이다.

그러나 전에 농부들에게는 보리, 무화과, 옥수수, 야채 그리고 올리브를 키울 땅이 있었다. 이 땅을 빼앗긴 것이다. 그때부터 농부들은 생산적인 것은 할 능력이 없으며, 용설란, 대추야자, 종려 나무에 땅을 버려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문명의 혜택이다.

Mais avant, les fellahs ont eu des terres à orge, à figuiers, à maïs, à légumes et à oliviers. Et elles leurs furent enlevées. A partir de ce temps-là, il fut reconnu que le fellah est paresseux, qu'il abandonne la terre à l'agave, au jujubier et au palmier nain. Eh! il s'agit des bienfaits de la civilisation, mon petit père!²⁸⁾

식민이주자들이 하는 말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주의 담화는 피식민자의 언설을 통하여 진실성을 잃고 독점하고 있던 담화적 권위를 잃는다. 식민자들은 또한 다음처럼 인간사회를 조직하는 윤리의 질서를 왜곡하기도 한다.

28) *Ibid.*, p. 188.

우리들은 모두 죄인들이다. 그렇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들이다. 우리를 가두건 풀어주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훌륭한 법이 있다. 그 법은 우리가 사는 것만으로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Nous sommes tous coupables. Oui, tous coupables, sans excepter un seul. Qu'on nous enferme ou qu'on nous relâche, cela ne changera rien aux choses! Il ya de bonnes lois: elles sont faites de telle sorte que par notre seul existence nous sommes coupables.²⁹⁾

공정한 질서를 보장하고 인간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법 체계가 편파적인 질서를 세우며 권리를 박탈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식민자들에 의하여 언어는 원래적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이들의 위선적 윤리가 저항과 변화의 필연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언술을 통하여 피식민지 현실을 전달하는 방식은 수용의 측면에서 추론적이고 논리적인 담화와는 다른 효과를 유발한다. 작가가 인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치 이미 기존의 담화로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³⁰⁾ 작가의 능력을 넘어서 유통되고 있는 익명의 진실을 전달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식민담화를 생생한 현실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 진위를 밝혀주는 것과 같은 효과

29) *Ibid.*, p. 271.

30) "(...) le fait de faire assumer le rendu du réel par la parole des personnages permettra à l'auteur de ne pas paraître l'assumer directement, (...); de se mettre par conséquent soi-même à une certaine 'distance' des ses personnages et de leur langage, qu'il présente alors comme déjà globalement organisé a priori (...).", Philippe Hamon, *op. cit.*, p. 140.

를 유발할 수 있다. 식민자들의 현실 인식이 자의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며 그들의 주장하는바 “문명”과 같은 이념들이 단지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거짓임이 드러난다. 그들의 담화는 의미론적 권위를 상실한 부도덕한 담화가 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 구현의 한 방식이 되고 있다. 더구나 자기비판을 통하여 오류를 인정하는 농민들의 태도는 그들이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파업을 끝내고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는 농부들은 텍스트에서 언급되어 있듯 “자제하고, 의식을 갖고 행동할 능력이 있음 *capables de se dominer, d’agir sciemment*”³¹⁾을 보여주어 거짓을 강변하는 식민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임을 독자에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 론

서사구조, 주인공, 등장인물들의 언설이라는 텍스트 내적 요소를 통한 『3부작 알제리』의 분석은 저항과 해방의 이념 전달이라는 작가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알제리의 현실을 알게 하고, 나의 글을 읽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 조국의 고통과 희망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³²⁾ 그가 선택한 글쓰기라는 투쟁 방식이 정교한 기법을 통

31) Mohammed Dib, *op.cit.*, p. 252.

32) “Il se trouve qu’étant écrivain, c’est sur le terrain de la littérature que j’ai choisi de combattre en faisant connaître les réalités algériennes, en faisant partager par ceux qui me liront, les souffrances et les espoirs de notre patrie.”, Interview, *Le Frigaro littéraire*, 4 juin 1964, 인용, Jean

하여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희망”이라는 두 단어가 압축하듯 그의 『3부작』에는 식민지 현실을 전달하는 하나의 축, 즉 분노와 고통이 담겨있는 주관적 판단의 축과 동시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약화시키며 객관화하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이 공존하고 있어 일견 그의 참여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텍스트의 내재적 분석은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재난으로부터의 정신적 해방이라는 탈식민적 기획은 모하메드 뎃뿐 아니라 카텝 야신에서 라시드 부제드라 Rachid Boudjedra, 아시야 제바르 Assia Djébar에 이르는 여러 알제리 작가들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각기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기획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작품은 글쓰기를 통한 정체성의 구축, 실종되었던 역사의 복원, 이중 언어·문화 글쓰기 등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문학에서는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자국에서는 대중 독자들의 적절한 호응의 부재로 이중적 소외를 겪고 있으면서도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풍부한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 프랑스어 문학에 대한 연구는 모하메드 뎃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높은 문학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éjeux, *op.cit.*, p. 148.

□ 참고문헌

- Barthes, Roland, L'analyse structurale du récit. *Communications* 8, Paris, Seuil, 1981.
- Bonn, Charles, *La littérature algérienne de langue française et ses lectures. Imaginaire et discours d'idées*, Thèse de Doctorat de 3e cycle, sous la direction de Robert Escarpit, Université de Bordeaux, 1972.
- _____, *Le Roman Algérien de langue française*, Paris, L'Harmattan, 1985.
- _____, *Lecture présente de Mohammed Dib*, Alger, ENAL, 1988.
- Boualit, Farida, "La logique chromatographique de la trilogie Algérie", *Itinéraires Contacts de cultures: Mohammed Dib*, vol. 21-22, 1e 2e semestres 1995, Paris, L'Harmattan.
- Dib, Mohammed, *La Trilogie Algérie: La Grand maison, L'Incendie, Le Métier à tisser*, Alger, Barzakh, 2009.
- Déjeux, Jean, *Littérature Maghrébine de langue française*, Ottawa, édition Naaman, 1973.
- Eddine-Chitour, Chems, *L'Algérie, le passé revisté, une brève histoire de l'Algérie*, Alger, Casbah, 2004.
- Hamon, Philippe, *Texte et idéologie*, Paris, PUF, 1984.
- Lacoste, Camille et Yves(sous la direction de),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 Paris, La Découverte, 2004.
- Maingueneau, Dominique, *Le discours littéraire*, Paris, Armand Colin, 2004.

- Memmi, Albert, *Portrait du colonisé*, Paris, Gallimard, Forlio Actuel, 1985
- Moura, Jean Marc, *Littératures francophones et théorie postcoloniale*, Paris, PUF, 1999.
- Noiray, Jacques, *Littératures francophones; I. Le Maghreb*, Paris, éditions Belin, 1996.
- Suleiman, Susan, *Le roman à thèse ou l'autorité fictive*, Paris, PUF, 1983.

«Résumé»

La Trilogie Algérie de Mohammed Dib: la persuasion de l'idéologie décolonisatrice

KIM Jungsook
(Université Pai Chai)

La Trilogie Algérie de Mohammed Dib, une œuvre monumentale pour l'engagement politico-historique de la décolonisation algérienne, nous offre un cas privilégié de la lecture idéologique du texte littéraire. Malgré la réaction des critiques quelque peu réticente, une approche immanente du texte fait ressortir une stratégie très subtile de la persuasion des messages décolonisateurs. Cet article vise à analyser les effets idéologiques textuels des éléments internes de *la Trilogie* qui décrit la misère extrême des prolétaires citadins et des paysans algériens à la veille de la Guerre d'Indépendance, ainsi que le processus de leur prise de conscience.

Dans ce roman composé d'une succession des scènes quotidiennes, indépendantes les unes des autres, on ne trouve pas de superstructure intégratrice qui puisse réunir en une

unité d'action signifiante ces tableaux paradigmatiques. D'où la structure narrative éclatée et l'absence conséquente de dynamisme. Si ces caractéristiques structurelles ne sont pas très propices à la transmission d'une idéologie, la vision incohérente et apathique qui s'en dégage correspond à la perception d'une réalité oppressante sous le régime colonial.

Le héros du roman, garçon d'une dizaine d'années, constitue à la fois la source et le support du récit dans ce sens que sa présence justifie non seulement l'enchaînement des séquences narratives, mais aussi l'assemblage de trois univers différents que représentent les trois textes de *la Trilogie*. Un personnage trop faible, incapable d'effectuer le parcours d'un "actant-sujet", sert d'instance narrative permettant de réunir et d'interpréter les messages idéologiques: un procédé efficace pour minimiser des "réticences" inhérentes à tout texte littéraire et s'assurer de la meilleure transmission possible des idées.

L'oralité occupe une place prédominante dans les trois textes. L'ensemble pourrait, selon un spécialiste de la littérature algérienne, s'appeler « conversation en Algérie ». Les paroles des personnages rapportant la réalité pénible et malheureuse semblent être les lieux privilégiés où affleurent les discours colonisateurs. Ces énoncés polyphoniques font sentir indirectement le pouvoir oppressant des colonisateurs « invisibles » et révèlent d'une façon efficace le mensonge et l'hypocrisie de leurs discours.

주제어: 알제리 문학, 모하메드 디브, 『3부작 알제리』, 이념적 읽기, 텍스트 효과, 탈식민 담화, 탈식민주의

mots-clés: littérature algérienne, Mohammed Dib, *La Trilogie Algérie*, lecture idéologique, effet textuel, discours décolonisateur, postcolonialisme

투고일: 2010년 11월 8일

심사일: 2010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9일